

“미래 기대되는 희망 도시 진일보”



임택 동구청장

골목상권 활성화·지역경제 회복 체류형 도시 구현·공감 복지도

광주 동구는 을사년을 맞아 '미래가 기대되는 희망 도시'로의 진일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임택 동구청장은 5일 "을사년 새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과 함께 '민선 8기 출범 3년차'를 맞아 6대 분야 48개 정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내실을 기해야 하는 주요 분야는 ▲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 ▲체류형 예술여행도시 구현 박차 ▲인문도시 도약 ▲스마트 안전건강 도시 조성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 ▲동구형 공감 복지 정착 등을 꼽았다.

임 청장은 "민생경제 약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새해에는 '지역회복 발행'과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광주 상생카드 특별 할인에 방점을 찍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관광은 관광객이 지역의 생활·관계 인구가 되는 '지속가능관광'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동구만의 대표 관광 브랜드 '예술여행 광주 동구'를 통해 생활·관계인구를 확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인문도시 도약을 위해 작은 도서관 연계를 통한 주민 인문학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인문도시 광주 동구"는 민선 8기 후반기에도 끝없이 주민의 질문에 답을 찾고 '미래가 기대되는 희망 도시'를 위해 진일보하겠다"며 "올 한해도 '동구의 희망은 주민 속에 있다'는 각오로 힘차게 뛰겠다"고 약속했다. /안재영기자

“나눔·배려 기반 따뜻한 서구 조성”



김이강 서구청장

골목상권 재도약·맞춤형 일자리 마을 BI 활성화·안전 도시 실현

을사년 광주 서구는 '착한도시 서구'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 제감형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도시 조성에 나선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5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구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과 명장의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마을 BI 사업, 주민 주도 정책참여단, 마을합창단 활성화를 통해 주민 자치 시대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 부자들이 함께하는 '서구 아너스'를 중심으로 '012(복지팀세 0, 12달 함께하는) 서구 파트너스'를 추진하며,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고령 장애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무장애도시 서구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안전한 도시를 위해 재난 점검 체계 마련과 '물방울 안전차선 설치', '스마트교차로' 등 지능형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나눔과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인 '천원국시'는 올해 10호점으로 확대되며,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를 선도해 돌봄의 모범 도시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김 청장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 오늘의 서구를 만들었다"며 "나눔과 배려, 연대와 협력이 일상이 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성학기자

“민생경제 회복 미래 성장 준비”



김병내 남구청장

백운·대촌·송암 '신성장 동력' 재난 예방·복지 안전망 강화

광주 남구는 2025년 을사년을 도약의 해로 삼고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5일 신년사를 통해 민선 8기 3년차 비전과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12·3 내란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연이은 어려움 속에서 남구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백운광장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과 스마트 공영주차장이 완공될 예정이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운영을 통해 경제와 문화의 거점으로 변모시킨다.

대촌산단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및 첨단 기업을, 송암산단은 자동차 부품 제조 특화단지를 조성해 남구의 미래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웃지기단' 운영과 움직이는 복지상담실 운영하고, 7979센터와 으뜸호 남구 통합돌봄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청년 취·창업 지원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지진가속도 계측 시스템 운영 및 상습 침수 지역 관리와 마을 제설반 등을 통해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2025년은 남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성숙한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모든 구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남구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 이뤄낼 것”



문인 북구청장

품격 있는 삶 누리는 사회 변화 육아·휴직장려금 등 新시책도

광주 북구가 을사년을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구정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로의 변화에 나선다.

문인 북구청장은 5일 "탄핵 정국과 민생경제 위기, 새로운 미래 먹거리의 선제적 확보 등 시대적 해결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며 "우리 사회와 구정 전반에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은 최소한의 삶 보장에서 구민 모두가 필수적이고 충분하며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북구는 '6+6 육아휴직제' 실시에 따라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해 기본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와 '아이맘 택시비 지원' 등 기본 의료·교통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로의 변화를 꾀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청년 취·창업자의 경우 임대료나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 등 수요에 맞춰 지원한다.

과감하고 신속한 현장 밀착 지원도 계속된다. 특히 북구는 광주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광주시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역화폐를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선 'AI 기반 소상공인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문 청장은 "여러 민생 지표의 어두운 전망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여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현장생활 행정가로서 변함없이 북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경제·복지·환경 지속가능발전최선”



박병규 광산구청장

자치 역량 확장·자치분권 강화 경제 혁신·촉촉한 복지망 구축

광주 광산구는 2025년을 맞아 시민 참여와 자치 역량을 기반으로 경제·복지·환경 등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비상착륙의 격랑 속에서도 광산 시민의 연대와 참여가 빛을 발했다"며 "시민의 지혜와 뜻을 모아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새로운 광산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동 미래발전계획'을 통해 시민이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을 포함해 자치 역량을 세대별로 확장하며 속의와 토론을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확대와 카드 수수료 지원 강화, 골목형상점가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광산형 생활일자리와 지속가능 일자리특구를 통해 경제 혁신의 전환점을 마련한다.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13 이웃살림 2개 동으로 확대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 및 건강관리소 운영 내실화 ▲천원한끼 식단 확대 ▲장애인복지관 신축 등으로 촉촉한 복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황룡강 생태길30과 평동호수 누리길 등 자연을 활용한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광산뮤직ON페스티벌을 지역 경제와 연계한다.

박 청장은 "주권자인 시민과 함께 역량을 집중해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고, 광산의 경험을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육근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